

이 두 사나이들의 볼끝, 챔피언스필드 달군다



KIA 어센시오

삼성 임창용

‘특급 마무리’의 스피드 싸움이 챔피언스필드를 달군다. KIA 타이거즈가 16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홈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원래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과의 승부. 난적과의 싸움이기는 하지만 KIA에게는 일방적인 싸움은 아니다. 2% 부족했던 파괴력으로 주중 막내 NC에 달미를 잡았던 KIA는 부상에서 회복한 이범호를 배치해 공격의 힘을 더한다. 첫 술에 배가 부르지는 못했지만 김진우가 돌아오면서 선발진에도 안정감이 더해졌다. 무엇보다 개막전 승부를 통해 ‘삼성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지난 시즌 4승12패로 일방적인 열세에 몰렸던 KIA지만 개막전에서 2-1,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번 대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포지션은 마무리다. 오승환이 떠나면서 비어있는 리그 최고의 마무리 자리. 외국인 마무리 어센시오(KIA)와 토종 마무리 임창용(삼성)이 자존심을

어센시오 체인지업·임창용 뱀직구
150km 넘나드는 스피드 싸움
주말 3연전 ‘수호신 대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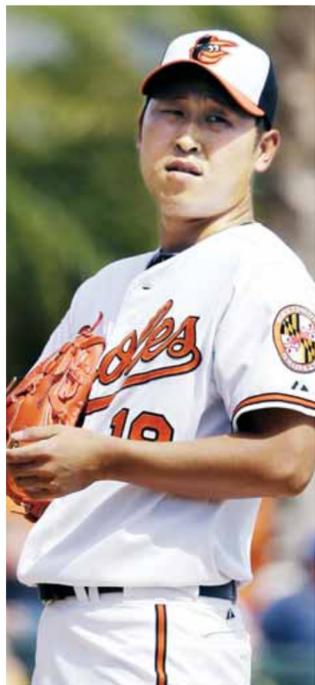
건 대결을 벌인다. 앞선 삼성과의 시리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임창용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KIA와 처음 만나게 된다. 모처럼의 고향 방문이기도 하다. 어센시오와 임창용의 대결은 ‘스피드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센시오에게는 150km가 넘는 감속구와 함께 고속 체인지업이 있다. 커브와 슬라이더도 구사하지만 어센시오가 가장 자신있어 하고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은 역시 체인지업이다. 140km는 가볍게 넘기는 고속 체인지업을 앞세운 빠른 승부로 KIA 뒷문을 수성하고 있다. 시즌 초반에만 해도 단조로운 패턴에 종종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체인지업의 위력이 더해지면서 어센시오의 입지도 넓어지고 있다. ‘수호신’ 임창용의 트레이드 마크는 뱀직구다. 역동적인 투구폼에서 뿌러지는 직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포수 미트를 파고들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뱀직구. 임창용은 공 끝의 움직임에 150km를 넘는 스피드가 더해져 이 공을 앞세워 일본 리그에서도 ‘미스터 제로’라는 명성을 얻은 바 있다. 팀 승리를 결정짓기 위한 두 특급 마무리의 스피드 싸움이 주말 챔피언스필드를 수 놓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 방에 날아간 ‘2승’

윤석민 5.2이닝 4실점...5패 째



윤석민(볼티모어)이 ‘대만 특급’ 왕첸밍과의 대결에서 시즌 5패째를 기록했다. 미국 프로야구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볼티모어 산하)에서 뛰는 윤석민이 15일 루이빌 베츠(신시내티 산하)와의 경기에서 5.2이닝 6피안타 5탈삼진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11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하며 인상적인 피칭을 했지만, 한방에 무너졌다. 왕첸밍은 7이닝 4실점(3자책)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윤석민이 1회 선두타자 제이슨 브루주아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1사에서 크리스 벨슨에게 다시 2루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다. 2회 바깥쪽 높은 직구로 마이크 코스탄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윤석민은 2사2루에서 크리스토퍼 네그론을 상대로 두 번째 탈삼진을 기록했다. 이후 11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는 등 깔끔한 피칭을 이어갔다. 3-1로 앞선 6회 1사에서 플카운트 승부 끝에 루벤 코테이를 우전안타로 출루시킨 뒤 연속 안타로 1사 1·2루에 몰렸다. 그리고 펠릭스 페레스에게 던진 슬라이더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점수는 순식간에 3-4가 됐다. 2루수 플라이로 투아웃을 잡았지만 코스탄조가 스트라이크 낮아웃으로 1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윤석민이 강판됐다. 경기가 5-6으로 끝나면서 윤석민은 시즌 5패째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7.12에서 7.00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한방’에 미국 진출 후 첫 6이닝 소화와 2연승이 무산됐다. /김여울기자 wool@



세비아, 유로파리그 우승

이탈리아 토리노의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벤피카(포르투갈)를 물리친, 세비아(스페인) 선수단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16강 진출

5-4 청주고에 끝내기 승

광주일고가 끝내기 역전극을 연출하며 왕첸밍전 16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1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고교 야구 전반기 왕첸밍전 겸 황금사자기 1차전 청주고와의 경기에서 노민석의 몸에 맞는 볼로 5-4 끝내기 승을 거뒀다. 고교 특급 투수 주권을 앞세운 난적과의 승부. 광주일고가 4번 체지선의 내야안타로 시작된 2회, 상대 1루수의 포구 실책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1-1로 맞선 5회 2사 2루에서 최수현의 적시타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6회와 7회 점수를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2-4로

뒤지던 8회 2사 2루에서 한두술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1점 차로 추격을 했다. 9회 청주고 에이스 주권이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광주일고에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투수 보호를 위한 경기당 한계 투구수(130개) 규정에 따라 주권에서 박세용으로 정주고 투수가 교체됐다. 선두타자 류승현의 볼넷에 이어 정다운의 타석 때 3루수의 실책이 나왔다. 희생번트와 고의 사구로 만들어진 1사 만루에서 체지선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4-4 동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노민석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광주일고의 5-4 역전승이 완성됐다. 광주일고는 오는 18일 제물포고와 8강 진출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

무등중,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 출전

무등중이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무등중은 1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최종전에서 중장중을 13-3, 5회 콜드승으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제44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예선을 겸해 열렸다. 무등중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통령기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상내역
▲우승: 무등중 ▲준우승: 진흥중 ▲최우수선수상: 김용하(무등중) ▲우수투수상: 정영웅(무등중) ▲타격상: 김진혁(총장중·0.556) ▲최다도루상: 김기훈(무등중·2개) ▲최다타점상: 정영웅(무등중·5타점) ▲감투상: 김원탁(진흥중) ▲미기상: 김의준(동성중) ▲감독상: 김성일(무등중) ▲지도상: 김도연(무등중 야구부장)